

찬양과 경배	찬양과 경배
기 도	기 도
성 경	성 경
말 씀	말 씀
설 교	설 교
은퇴예식 김길수 이영섭 이형은 박성자 최군심	주기도문

찬양과 경배	다같이	찬양과 경배	다같이
말 씀	은 1:17~2:10	성 경	성 경
설 교	형명자 목사	설 교	설 교
기 도 회	다같이	개인기도	다같이

다음주 기도 **주일**날 장봉일 **오후** 김기현 **수요** 강효덕 **식당** 1조 **주방** 사랑

1월 **안내** 배정식 박정용 신삼범 정충규 정은복 강정자
현금 이영숙

- 한 해의 마지막을 맞아 지나는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.
- 새해를 기대하며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,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.
-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으로 붙드시고, 날마다 새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.

여기까지, 그리고 끝까지

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.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, 아픔과 눈물의 시간도 있었으며,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힘들게 버텨야만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. **“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, 감사합니다.”**

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.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. 넘어질 때마다 붙드셨고,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며,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. **“하나님, 감사합니다.”**

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**“여기까지”**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, **“끝까지”**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. 성경은 하나님을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.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, 우리의 결심이 약해질 때도,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말없이 순종한 자리에서,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책임의 자리에서,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묵묵히 감당해 오신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**“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.”**

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.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,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.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.

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.

[주일헌금] 129명

[십일조]

강효덕 류홍식 박성자 배상희 이옥희 이주형 정광희 진강자 한선영 무명

[감사헌금]

김순례 류홍식 박덕자 박주익 신영은 신홍식 이상단 이춘아 장윤자 장정섭 정방옥 조용자 종고등부 차경미 최군심 한선영 황금자 무명

[헌당헌금]

강정순 강효덕 김연희 김 효 라성이 류홍식 왕도심 이주형 임승섭 한선영

[선교헌금]

강정순 강효덕 김연희 김 효 류홍식왕도심 이주형 임승섭 한선영 무명

[주일식사헌금] 김영배 이영섭

목 장	인도자	모임장소	참 석	성경공부	성경통독
사 랑	형명자	본 당		1	
회 락	이순옥	새가족실	성		
화 평	정성복	찬양대실		1	
인 내	한선영	자 모 실	탄	2	
자 비	차경미	사 무 실		3	
총 성	국동현	노 아 실	발	3	
온 유	이영숙	식 당		1	
절 제	주순남	본 당	표	1	

